

윤치호(尹致昊)

내선일체에 대한 소신

이 한 편은 지난 2월 9일 저녁, 경성부민관에서 열린 본사 주최의 ‘본지 창간기념강연과 영화의 밤’의 두 번째 저녁, 80 에 가까운 몸으로 3,000 명의 청중들을 향해 웅변한 선생의 강연 요지이다. (기자)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조선 측에서 여러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저는 이에 대해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제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선일체라고 하면 이미 병합 당시에 구체화된 것이지, 새삼 그것을 강조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소론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막 태어난 아이를 어른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인도 병합 당시는 단지 일본 국민으로서의 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20 년 정도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조선인도 병합 이래 19 년이 지난 오늘에야 비로소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어른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봅니다.

요컨대 병합 이래 29 년간의 총독정치는 우리 조선인을 일본 내지인과 일원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따라서 총독정치의 각 단계가 달라짐에 따라 정치 그 자체에도 다양한 뉘앙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이토(齊藤) 총독의 통치 목표는 내선융화(內鮮融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가키(宇垣) 총독시대로 바뀌어서는 자력갱생이 표어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의 미나미(南) 총독의 시대가 되어서는 내선일체의 표어가 통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 시대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표어의 변경 그 자체에는 다양한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줄기는 조선의 민도(民度)를 일본 내지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내선일체를 완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내선일체가 지금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수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내선일체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제국의 입장에서 보건대 굳이 그것을 완성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저는 작년 9 월 5 일 미나미 총독을 면담했을 때, 미나미 씨는 저에게 조선청년 지도에 관한 세 가지 사항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중에 제2 항에 “동양인의 동양 건설의 핵심은 내선일체의 완성에 있다”라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이 말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체 우리 조선인이 일본 ‘내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동양 전체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 점에서 보건대 우리는 일본 내지인보다 지금도 여전히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 내지인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동양인의 동양 건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런 점은 저 자신 매우 의문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저는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의문을 완전히 일소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지리적으로 보건대 우리 조선은 제국의 대륙정책상 실로 경시할 수 없는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신동아 건설의 가능 여하의 문제가 실로 내선일체의 완성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반도는 제국의 대륙정책상 이른바 병참기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리적 중요성에서 보건대 일본과 조선의 일원화, 즉 우리 조선인을 일본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동양 건설을 위해 동등한 국민적 의무와 자격을 갖고 매진하게끔하는 일이 얼마나 긴요한 것인지는 제국의 대륙정책의 입장에서 보건대 매우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일본 내지의 어떤 경제학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조선산 미곡은 제국의 국책 수행상 더 없이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고, 이는 오늘날 대륙전선을 지지하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적으로 보더라도 오늘날의 조선인은 물론 문화적으로는 뒤쳐져 있지만 민족적 소질에서 보건대 결코 열등한 민족이 아닙니다. 저는 조선민족의 우수한 소질을 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대적인 교육과 문화와 자격만 부여된다면 분명 일본 내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동양 지도는 물론 세계의 지도를 위해서도 공헌할 수 있는 우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대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늦었을 뿐입니다. 도리어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조선인은 실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많은 문화재를 남기고 있지 않습

니까. 또한 근년의 일을 보더라도 세계를 재패한 손기정 군이 우리와 같은 ‘반도인(半島人)’⁸¹⁾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사소한 예이긴 합니다만 역시 조선인이 민족적으로 결코 다른 민족에 뒤지지 않는 체력과 의지력을 갖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실재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적으로 보더라도 우수한 소질을 갖고 있는 우리 조선인이 일본 내지인과 동등한 국민적 의무 및 자격을 부여받았을 경우, 일본 내지인과 동등하게 동양 건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나미 총독이 말씀하신 “동양인의 동양 건설의 핵심은 내선일체의 완벽에 있다”는 표어를 매우 심각한 의의를 지닌 진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조선인 측에서 나오는 비평입니다만, 조선인이 내선일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소론입니다. 이는 주로 민족주의적 편견의 표현입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선일체의 길 이외에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선일체의 길을 거부한다고 하면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 공산주의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산주의에 의해 조선인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론은 그렇다 치고 혁명 이후 20년을 경과한 오늘날의 러시아의 실정을 보십시오. 역사에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공산주의는 결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뿐더러 결정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박멸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생각할 때, 내선일체는 우리 조선인에게 실로 사활을 건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내선일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민족적 진로를 별견하고 또 이도로에서 행복한 장래를 전폭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내선일체에 반대하는 논의로서 이른바 ‘내주선종(內主鮮從)’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을 식민지로 보는 시각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시동인(一視同仁)은 황송하게도 천황폐하의 성지(聖旨) 이시고, 우리도 하나같이 천황폐하의 적자(赤子)라는 자격과 의무가 이 성지에 의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조선을 식민지로 보는 것은 일시동인의 성지를 무시하는 형법상의 불경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견지에서 내선일체 반대론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찰이 간섭할 문제이지 우리가 간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내선일체라 해도 오늘날 그것은 조선 내의 일본인과 조선인들 사이에서만 하는 말이고, 일본 내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우론(愚論)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금강산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멋진 산이지만, 일본 내지인 대부분은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지인이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금강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내지의 내지인이 지금도 여전히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선일체의 진실성이 저하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내선일체에 대한 일반 내지인의 인식을 높이고 또 지도해야만 합니다.

<출전 : 尹致昊, 「內鮮一體に對する所信」, □東洋之光□ 1939년 4월호, 6~9쪽>